

The buck stops here?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The buck stops here.”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저런 문구가 명패에 새겨져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 국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러나 지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도 11년 만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보내 국정 운영방안을 대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탄핵집회까지 하는 등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연설에 갈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으로 정치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혼돈스러운 정국의 중심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 때 한 숟밥을 먹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해명과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을까 싶다.

이런 이슈 가운데 일부는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순전히 법적으로만이다. 법과 ‘민심’에는 괴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도 심리적·윤리적으로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법은 무죄를 선고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죄인 경우가 많다. 대통령과 참모진 중에 율사들이 많아 법적인 유·무죄만 중시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는 민심을 헤아리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민심을 야당은 활용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야권에서 서서히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거야인 민주당은 ‘탄핵’ 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는 ‘아직까지’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어 민주당이 언제 탄핵 대열에 동참할지는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민주당은 명태균씨의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씨는 증거를 모두 불태우겠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녹취록 공개가 이를 증명해준다. 명

태균 씨를 둘러싼 스캔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나와 현 정권의 존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 인사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지난 4월, 소위 ‘대과 사건’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과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던 건 주위 참모들의 잘못된 정보제공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것은 결정적 판단 오류였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The buck stops here’가 아니라 ‘Pass the buck(책임은 나에게 없다)’이란 행태만 보여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답을 하겠다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보여야 한다.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정보를 왜곡·제공하는 주위 인물들에 대한 쇄신도 결단해야 한다.

/정치경제부장 yhj@metroseoul.co.kr

우는 아이 사탕 물리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



김 현 정
(정책사회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달 29일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스토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비롯해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 살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총 6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잖은 시민들은 이날 시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노답(답이 없는) 탁상행정’

이라고 평가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애 있는 신혼부부가 사는 집 중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없을 듯”, “서울에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이 많지 않다. 이걸 그냥 안 주겠다는 거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 정책은 ‘업체 배 불리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시가 스토메 비용을 지원해주는 순간 업체에서 100만원을 올려 신혼부부가 내야 할 돈은 똑같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9월 산후 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자 관내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 이상(32%)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바우처 지급 전후 서울 지역 산후조리

원의 이용 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최소 3%에서 최대 46%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가 ‘숨은 없고 타들어 가는 나무만 보는 정책’,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시는 올 4-8월 연속 서울시 출생아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을 두고 그간 추진한 저출생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출생아수는 1057명. 이와 함께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서울시 자살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시민은 2165명에 달한다. 돈 몇 푼 쥐여주며 출생아 수를 억지로 늘려 놓았다고 한들 산 사람의 행복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출생률 증가수치는 의미 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hjk1@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10월 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지인의 잔재주에 말리는 투자는 신중. 48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0년생 추락하는 세상에 새로운 날개를 붙일 수는 없다. 72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84년생 고난과 시련은 늘 있는 것이다.

소 37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해.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난감하다. 61년생 양피와의 거리는 잘 살펴야 한다. 7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다음날에. 85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다.

호랑이 38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실수를 덮어 줄 것. 50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다. 6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74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86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토끼 3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1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이 좋은 날. 63년생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불평하지 말고 공부. 75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오후에 해소. 87년생 힘내라는 말을 기대하지 말도록.

용 40년생 이기적인 마음은 실수가 따른다. 52년생 주식투자보다는 집을 사는 것이. 64년생 주황색이 행운을 준다. 76년생 월급 타면 소비보합을 들자. 88년생 부자가 천국으로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이치가 있다.

뱀 41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53년생 경험은 언젠가 금과옥조를 탄생시킬 것. 65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77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니 급한 마음을 차분히. 89년생 직장 이직은 비현실이니.

말 42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니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54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 이 들려온다. 66년생 출퇴근 시간약속을 중시하라. 78년생 명예가 높아지며 기다리던 승진의 선물이 들어온다. 90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시작.

양 43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하다. 55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역량을 발휘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67년생 개천에서 용이 난 형국이다. 79년생 꿈은 현실로 이어지며 뿌린 대로 거둬지니 시작하라.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원숭이 44년생 사돈과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5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68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이다. 8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좋아도 허상으로 끝나버린다. 92년생 취미로 인해 가정을 등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닭 4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7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69년생 옆 사람에게 충실하. 81년생 즐거움은 작은 동물에게도 있으니 반려아기들을 때리지 말고 키우도록. 93년생 망각의 신이 주신 선물.

개 46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58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노력이 필요. 70년생 꿈이 원대해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것. 82년생 운명적인 인연이라 해도 일반적 만남일 뿐. 94년생 일이 즐거우니 행복.

돼지 4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 5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71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83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토지가 비옥해지는 이치. 95년생 연인과 백년가약(百年佳約)의 날을 잡는다.

김상회의四季 우정의 세계

앞서 얘기한 관포지교도 그렇거니와 수어지교(水魚之交)처럼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친구 사이의 우정이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자의 사자성어 중 지란지교(芝蘭之交)도 있다. 친구 사이가 지초와 난초만큼 향기롭고 맑은 품격 있는 우정을 나눈다는 뜻이다. 지란지교는 공자가 언급한 것으로 공자는 성정이 바른 사람과 같이 하면 마치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방안에 함께 있듯 그렇게 서로가 향기롭게 동화됨을 의미함을 말했다는 데서 유래됐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라고도 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자못 진정한 친구가 있어 힘이 되어 주면 삶에 그런 재산이 없을 것이나 만만치는 않음이다.

중국 제자백가 중 도가의 대표적 인물인 장자(莊子)도 이와 유사한 고사가 있다. 하루는 장자가 아들을 불러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묻자 아들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대답했다. 이에 장자는 아들에게 말하길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친구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자 아들은 진정한 친구라 생각한 사람들의 집에 시체를 지고 갔지만 모두 외면을 했다. 이에 아들은 당황하였고 이번에는 장자가 자신의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장자의 친구는 “우선 이리 들어와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처리하세”라며 받아들였는데 살인은 실재가 아니라 장자가 아들을 가르치려고 한 설정이었고 시체라고 한 것은 갖 잡은 멧돼지였다는 얘기가. 꼭 이와 같은 과장된 설정이 아닐지라도 형편이 좋을 때만 친구인 경우가 우리 인간사에는 허다하다. 영미권에서도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속담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 5 | 7 | 6 | 2 | | 9 | | |
| | | | 4 | | 1 | | | 8 |
| 1 | | | | | | | | |
| | 7 | 8 | | | | 1 | 5 | |
| 2 | | | | | | | | 9 |
| | 6 | 4 | | | | 7 | 3 | |
| | | | | | | | | 3 |
| 8 | | | 5 | | 9 | | | |
| | 5 | | 2 | 8 | 7 | 9 | | |

| | | | | | | | | |
|---|---|---|---|---|---|---|---|---|
| 5 | 3 | | 1 | | | | | 2 |
| | 8 | 5 | 6 | | | | | |
| | | | | | | | 5 | 4 |
| 9 | | 2 | 7 | | | 4 | | |
| 7 | | | 8 | | | | 9 | |
| 2 | | 6 | 9 | | | | | 7 |
| 8 | 1 | | | | | | | |
| | | | 7 | 3 | 6 | | | |
| 6 | | 4 | | | 5 | | | 9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546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650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